

2년째 감사의견 ‘거절’... 셀마테라퓨틱스, 결국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16~24일 정리매매, 27일 상폐
올 비적정 감사의견 가능성 기업
상장사 60곳... 투자자 주의해야

일정실업, 감사의견 한정 받고
비케이탑스 등 5곳은 의견거절

코스피 상장사 셀마테라퓨틱스가 올 해 첫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기업으로 지정됐다.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 가능성이 높은 상장사가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공시위원회는 지난 10일 바이오 기업인 셀마테라퓨틱스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

<코스피 관리종목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기업명	사유
셀마테라퓨틱스	감사의견 의견거절 2년 계속(상장폐지 결정)
일정실업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
비케이탑스	공시의무 위반, 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
쌍용차	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
선도전기	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
하이트론	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 회생절차 개시신청

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이다. 이에 따른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3월 27일이다. 이날 기준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상장 유지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6곳, 코스닥시장 54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스피 종목은 비교적 시가총액

규모가 커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정실업의 경우 반기 검토의견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비케이탑스·쌍용차·선도전기·셀마테라퓨틱스·하이트론 등은 의견거절을 받은 상태다. 이중 셀마테라퓨틱스는 상폐 대상에 올랐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2022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1곳이며, 이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8곳으로 전체 28.1%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91.7%로 가장 높았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사의 회계장부가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걸 의미한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폐 대상이 된다. 코스닥 종목은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폐될 수 있다.

이전에는 단 한 번의 비적정 의견으로도 상폐 절차에 들어갔지만 2019년 기준을 완화해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일 경우 상폐 심사를 받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폐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단,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형식적

퇴출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피는 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폐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이때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추후 상장위를 개최해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심의를 한 뒤 최종 상폐 여부를 가린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장기간 거래 정지로 투자금이 묶여 또 다시 피해를 입는다.

거래소는 "결산 시기에 투자 관련 중요정보가 집중되고 예상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SM 인수전 일단락... 엔터주 '급락 주의보'

SM 시총 두배가량, 주가 93% 급등
YG엔터 31%, JYP엔터 15% 상승
단기간 급등... 단기간 하락 가능성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을 두고 하이브가 인수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에스엠 주가 급등에 따라 어부지리로 상승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하이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인수 절차 중단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와의 경쟁 구도 심화와 주식 시장 과열에 따라 에스엠 인수를 위한 제시 가격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당초 발표했던 에스엠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하이브와 플랫폼 관련 사업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에스엠을 비롯해 주가가 급등한 K팝 '4대 기획사'의 주가 향방

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단기 주가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엠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조8258억원에서 지난 10일 기준 3조5192억원으로 두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가는 92.7% 늘었다. 특히 지난 2월 하이브와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에 대해 각각 12만원, 15만원의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에스엠 주가는 연일 상승세였다. 이 기간 에스엠의 자회사인 영상콘텐츠 업체 에스엠씨엔씨(SM C&C)의 주가도 35.5% 치솟았다.

에스엠과 함께 4대 기획사로 꼽히는 와이즈엔터테인먼트(31.1%), JYP엔터테인먼트(14.6%), 하이브(5.9%) 등도 나란히 올해 들어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에스엠 경영권 분쟁에 따라 엔터 업종 전반의 주가가 올랐다"며 "단, 에스엠 주가는 카카오의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날(26일)까진 15만원선이 하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의 경우 이번 에스엠 인수 중단 결정으로 인해 주가가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 중단의 이유로 주주 가치 훼손을 꼽았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이번 성명을 통해 "대항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까지 에스엠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시장 과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행동주의펀드 활동에 증권사 IB '훈풍'

SM·오스팀 경영권 분쟁에
미래에셋·한투증권 등 4곳
공개매수 주관 실적 총 4건

최근 주요 증권사 기업금융(IB) 부문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활발한 활동으로 발생한 경영권 분쟁 등이 증권사 IB 부문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과 오스팀플란트의 경영권 분쟁으로 금융자문, 공개매수 주관 등 증권사 IB 부문에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국내 상위 4개증권사는 3월 현재까지 경영권분쟁으로 총 4건의 공개매수를 주관, 지난해 1년간 실적(4건)과 동일한 실적을 올렸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이 촉발한 SM 경영권 분쟁에는 삼성증권이 이수만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하이브측에, 한국투자증권은 'SM 경영진·

얼라인·카카오' 연합전선측에 각각 공개매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브는 40% 지분 확보를 목표로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했지만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으면서 실패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7일 오는 26일까지 SM 주식 총 883만3641주를 주당 15만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두 증권사는 적지 않은 주관 수수료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오스팀플란트의 경영권 분쟁에는 NH투자증권이 참여했다. NH투자증권은 MBK파트너스와 UCK(유니슨캐피탈코리아) 컨소시엄의 오스팀플란트 인수 관련 자문과 공개매수 주관을 맡았다. NH투자증권은 오스팀플란트 공개매수 수수료로 약 1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은 오스팀플란트건으로 부수익을 챙기고 있다. 컨소시엄이 2조1000억 원에 이르는 공개매수 자금을 마련할 때, NH투자증권은 1조7000억 원을 브릿지론 형태로 제공해 대출 이자를 챙겼다.

/원관희 기자 wkh@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4주 연속 축소

전주대비 0.21% 하락 0.03%p↓
강북구 -0.33%서 -0.31%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4주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반영돼 위축됐던 매매수급지수는 다시 상승하며 회복세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24%)보다 0.03%포인트(p) 축소되면서 4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대체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동북권에서는 강북구(-0.33%→-0.31%)가 미아·변동 소규모 단지, 광진구(-0.37%→-0.31%)가 구의·광장·자

양동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도심권에서는 중구(-0.27%→-0.25%)가 황학·흥인·회현동 구도심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43%→-0.42%)가 동촌·방화·화곡·염창동, 금천구(-0.49%→-0.46%)는 시흥·독산동 대단지, 구로구(-0.33%→-0.29%)는 개봉·고척동 구축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동남권의 경우 송파구(-0.02%→-0.03%)가 잠실동 주요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과 실거래가가 동반 상승하며 유일하게 상승으로 전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곳 중 용산구(-0.19%→-0.23%)를 제외한 강남구(-0.14%→-0.10%)와 서초구(-0.09%→-0.01%)는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 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하락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선호도 높은 주요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로 매수관망세가 여전히 유지중이고 매수·매도 희망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kdh@

전국 5개 단지서 총 2669가구 집들이

분양 캘린더

'휘경자이디센시아' 등 4곳 견본주택

3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2669가구(일반분양 266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신동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금강펜테리움3차센트럴파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코아리더스원'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 4곳에

서 개관 예정이다.

DL이앤씨는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 2신도시 A56블록에서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 1회차를 분양한다. 지하2층~지상 12층, 13개동, 800가구 규모의 단지를 총 2회에 나눠 분양하며 전용면적 99·115㎡ 437가구를 1회차에 분양한다.

신도시 내에 위치한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 교육시설은 물론 공원, 상가 등의 생활기반시설이 조성된다. 동탄역을 중심으로 GTX-A(오는 2024년 예정) 노선과 동탄도시철도(트램), 동탄인덕원선 등이 예정돼 있어 주변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대환 기자